

# III.

## 서울의 산업

---

|                   |   |
|-------------------|---|
| <b>1</b> 서울의 산업구조 | 1.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br>1.2 제조업<br>1.3 서비스업<br>1.4 지식기반산업 |
|-------------------|---|

---

|                      |   |
|----------------------|---|
| <b>2</b> 6대 전략산업의 특성 | 2.1 관광·MICE산업<br>2.2 IT융합산업<br>2.3 콘텐츠산업<br>2.4 디자인·패션산업<br>2.5 인채산업<br>2.6 의류·봉제산업 |
|----------------------|---|

---

|             |
|-------------|
| <b>3</b> 요약 |
|-------------|

# 1. 서울의 산업구조

## 1.1.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사업체수와 사업체 규모

### 2011년 서울시 사업체의 88.9%가 서비스업으로 구성

2011년 서울시 산업의 사업체는 총 752,285개이다. 서울시 산업의 사업체는 서비스업 675,943개(89.9%), 제조업 56,026개(7.4%), 건설업 20,156개(2.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4개(0.02%), 농림광업 46개(0.01%)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산업의 사업체는 부가가치 기준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다소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다.

### 지난 11년간 사업체수 기준 서울시 산업구조 중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중이 확대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87.6%에서 2011년 89.9%로 2.3%p, 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2.7%로 0.5%p 확대되었다. 반면, 2011년 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림광업의 비중은 2000년 대비 각각 -2.7%p, -0.01%p, -0.01%p 축소되었다. 2000~2011년 중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서비스업과 건설업만 각각 0.6%, 2.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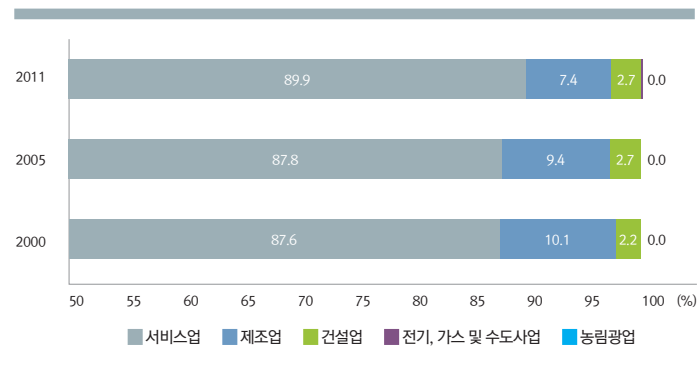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서울시 소규모 사업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

서울시 소규모(5인 미만) 사업체수는 2000년 595,749개에서 2011년 612,751개로 연평균 0.3%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체수는 2000년 123,787개에서 2011년 139,534개로 연평균 1.1% 증가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2000년 82.8%에서 2005년 81.8%, 2011년 81.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1.3%p 축소되었다.

###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편

서울시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높다. 그러나 2000~2011년 중 서울시 업종별 규모의 영세성은 서비스업에서는 완화되는 반면, 나머지 산업에서는 다소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 사업체수 기준 :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주 : 5대 대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조정(부록 표 1 참조)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그림 3-2 서울시 전 산업 기준 소규모 사업체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표 3-1 서울시 산업별 소규모 사업체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개, %)

| 구분   | 2000    |      | 2005    |      | 2011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농림광업 | 29      | 32.6 | 34      | 42.5 | 23      | 50.0 |
| 제조업  | 51,680  | 71.0 | 48,569  | 69.4 | 42,727  | 75.7 |
| 전기가스 | 29      | 15.8 | 12      | 6.7  | 21      | 18.4 |
| 건설업  | 7,464   | 46.3 | 11,069  | 55.6 | 11,863  | 58.9 |
| 서비스업 | 536,547 | 85.1 | 546,963 | 84.0 | 558,117 | 82.6 |
| 전 산업 | 595,749 | 82.8 | 606,647 | 81.8 | 612,751 | 81.5 |

주 : 비중은 산업별로 사업체수 중 소규모 사업체수의 비중을 의미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 1.1.2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종사자수

### 2011년 서울시 종사자의 85.6%가 서비스업에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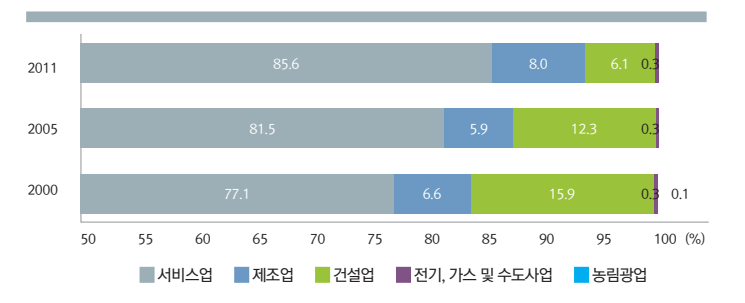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 산업의 종사자는 총 4,498,312명으로 서비스업 3,851,243명(85.6%), 건설업 359,900명(8.0%), 제조업 274,809명(6.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473명(0.3%), 농림광업 887명(0.02%)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수 기준 서울시 산업구조는 사업체수 기준과 달리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1년간 종사자수 기준 서울시 산업구조 중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중이 확대

지난 11년간 종사자수로 본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는 사업체수 기준과 유사하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변화폭이 더 큰 것이 특징적이다.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8.5%p, 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1.4%p 확대되었다. 반면, 2011년 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림광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2000년 대비 각각 -9.8%p, -0.1%p, -0.03%p

축소되었다. 2000~2011년 중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서비스업 3.1%, 건설업 3.9%, 제조업 -6.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3%, 농림광업 -6.9%를 기록하였다.

그림 3-3 종사자수 기준 :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주 : 5대 대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조정(부록 표 1 참조)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 1.2 제조업

### 서울의 2011년 제조업체 기준 상위 5대 업종은 제조업체의 65.9%를 구성

서울의 2011년 사업체수 기준 상위 5대 제조업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23.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2.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0.2%), 음·식료품 제조업(9.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9.6%)으로 분석되었다.

### 상위 5대 제조업 사업체수는 2000년 이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산업 구성비는 확대

상위 5대 제조업 사업체수는 2000년 이후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서 4.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업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제외한 상위 5대 업종 중 4개 업종의 사업체 비중은 모두 확대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제조업 부문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상위 업종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2 사업체수 기준 : 2000년 이후 서울시 상위 5대 제조업의 구조변화 (단위 : 개, %)

| 구분                     | 2000   |       | 2005   |       | 2011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제조업(계)                 | 72,690 | 100.0 | 69,957 | 100.0 | 56,026 | 100.0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3,547 | 18.6  | 12,637 | 18.1  | 13,318 | 23.8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093 | 15.3  | 11,339 | 16.2  | 7,042  | 12.6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6,139  | 8.4   | 7,307  | 10.4  | 5,705  | 10.2  |
| 음·식료품 제조업              | 6,258  | 8.6   | 7,130  | 10.2  | 5,422  | 9.7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6,543  | 9.0   | 5,732  | 8.2   | 5,366  | 9.6   |

주 :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정된 제조업 분류를 사용(부록 표 2 참조)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서울의 2011년 제조업 종사자수 기준 상위 5대 업종은 제조업 종사자의 68.2%를 구성**

서울의 2011년 종사자수 기준 상위 5대 업종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33.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및 전기장비 제조업(12.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9.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6.6%), 섬유제품 제조업(6.0%)으로 나타났다.

**상위 5대 제조업 종사자수는 2000년 이후 모두 감소 추세**

상위 5대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2000년 이후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년간 섬유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3%, -9.5%로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업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3 종사자수 기준 : 2000년 이후 서울시 상위 5대 제조업의 구조변화 (단위 : 명, %)

| 구분                               | 2000    |       | 2005    |       | 2011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제조업(계)                           | 568,098 | 100.0 | 473,445 | 100.0 | 274,809 | 100.0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09,925 | 19.3  | 94,619  | 20.0  | 91,909  | 33.4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및 전기장비 제조업 | 88,992  | 15.7  | 64,564  | 13.6  | 33,860  | 12.3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874  | 14.2  | 76,756  | 16.2  | 27,093  | 9.9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25,946  | 4.6   | 31,106  | 6.6   | 18,251  | 6.6   |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47,597  | 8.4   | 33,169  | 7.0   | 16,355  | 6.0   |

주 :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정된 제조업 분류를 사용(부록 표 2 참조)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1.3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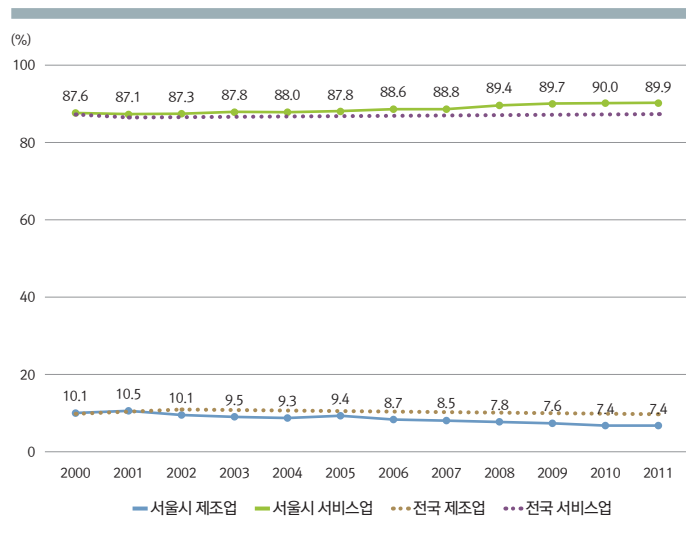
**지난 11년간 서울시 산업구조는 서비스화 확대와 제조기능 약화라는 방향으로 전개**

사업체수로 본 서울시 산업의 서비스화 수준은 2000년 87.6%에서 2011년 89.9%로 2.3%p 확대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제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2.7%p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서울의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제조업 사업체수의 12.1배에 달한다.

**고용측면에서 본 서울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는 더 큰 폭으로 확대**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00년 77.1%에서 2011년 85.6%로 8.5%p 확대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9.8%p나 축소되었다. 서울과 전국의 서비스업 사업체(종사자) 비중격차도 2000~2005년 0.8%p(8.8%p)에서 2006~2011년 2.4%p(12.2%p)로 확대되었다. 이는 서울시 서비스화 진전과 제조기능 약화 수준이 전국을 상회하고, 그 속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사업체수 기준 : 서비스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2011년 서울시 서비스업체의 약 50%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으로 구성**

서울의 2011년 사업체수 기준 상위 5대 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32.0%), 숙박·음식점업(17.7%), 운수업(13.6%), 기타서비스업(10.3%), 사업서비스업(6.0%)으로 나타났다. 지난 11년간 사업체수 기준 상위 5대 업종은 2000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위였다가 탈락하고, 사업서비스업이 6위에서 5위로 부상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2000년 이후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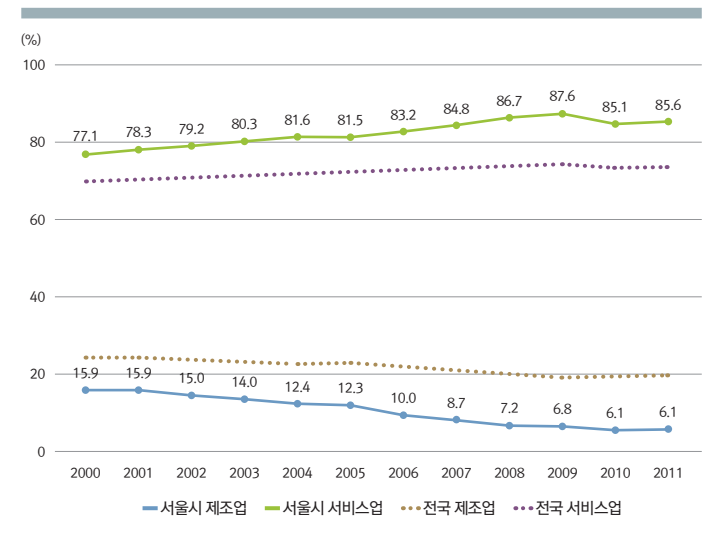
지난 11년간 서울시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정보 및 통신업은 지난 11년간 연평균 22.1% 증가하였다. 2000년 대비 2011년 사업체 비중은 정보 및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확대되었다. 반면, 제 1, 2위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사업체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 사업체수 기준 : 2000년 이후 서울시 서비스업의 구조변화 (단위 : 개, %)

| 구분                 | 2000    |       | 2005    |       | 2011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비스업(계)            | 630,386 | 100.0 | 651,063 | 100.0 | 675,529 | 100.0 |
| 도매 및 소매업           | 237,985 | 37.8  | 222,079 | 34.1  | 215,874 | 32.0  |
| 숙박 및 음식점업          | 116,758 | 18.5  | 117,552 | 18.1  | 119,320 | 17.7  |
| 운수업                | 80,757  | 12.8  | 95,222  | 14.6  | 91,773  | 13.6  |
| 기타서비스업             | 63,408  | 10.1  | 65,851  | 10.1  | 69,771  | 10.3  |
| 사업서비스업             | 28,117  | 4.5   | 35,165  | 5.4   | 40,321  | 6.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8,470  | 4.5   | 33,632  | 5.2   | 35,207  | 5.2   |
| 교육서비스업             | 20,422  | 3.2   | 23,314  | 3.6   | 31,181  | 4.6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4,831  | 2.4   | 17,488  | 2.7   | 23,275  | 3.4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7,728  | 4.4   | 28,474  | 4.4   | 21,383  | 3.2   |
| 정보 및 통신업           | 1,805   | 0.3   | 2,266   | 0.3   | 16,175  | 2.4   |
| 금융 및 보험업           | 8,651   | 1.4   | 8,577   | 1.3   | 9,942   | 1.5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454   | 0.2   | 1,443   | 0.2   | 1,307   | 0.2   |

주 :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정된 서비스업 분류를 사용(부록 표 3 참조)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그림 3-5 종사자수 기준 : 서비스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2011년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약 65%가 상위 5대 업종에 종사**

서울의 2011년 종사자수 기준 상위 5대 서비스 업종은 도·소매업(20.5%), 사업서비스업(18.6%), 숙박·음식점업(10.9%), 정보·통신업(7.9%), 교육서비스업(7.8%)으로 구성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대 업종 비중이 50.0%에 달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5위였으나,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위로 서비스업 중 고용창출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00년 이후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추세**

지난 11년간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정보 및 통신업은 지난 11년간 연평균 20.6% 증가하였다. 2000년 대비 2011년 종사자 비중 변화를 보면, 특히 사업서비스업과 정보 및 통신업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 비중은 대폭 축소되었다.

표 3-5 종사자수 기준 : 2000년 이후 서울시 서비스업의 구조변화 (단위 : 명, %)

| 구분                 | 2000      |       | 2005      |       | 2011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비스업(계)            | 2,756,642 | 100.0 | 3,130,223 | 100.0 | 3,844,604 | 100.0 |
| 도매 및 소매업           | 816,594   | 29.6  | 748,028   | 23.9  | 786,971   | 20.5  |
| 사업서비스업             | 319,769   | 11.6  | 540,908   | 17.3  | 714,154   | 18.6  |
| 숙박 및 음식점업          | 362,912   | 13.2  | 393,018   | 12.6  | 417,162   | 10.9  |
| 정보 및 통신업           | 38,719    | 1.4   | 44,860    | 1.4   | 302,726   | 7.9   |
| 교육서비스업             | 195,579   | 7.1   | 245,483   | 7.8   | 299,858   | 7.8   |
| 금융 및 보험업           | 199,312   | 7.2   | 212,151   | 6.8   | 267,602   | 7.0   |
| 운수업                | 231,463   | 8.4   | 249,765   | 8.0   | 265,736   | 6.9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23,551   | 4.5   | 160,950   | 5.1   | 249,466   | 6.5   |
| 기타서비스업             | 168,666   | 6.1   | 174,563   | 5.6   | 194,332   | 5.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9,194   | 4.0   | 138,050   | 4.4   | 144,271   | 3.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98,843    | 3.6   | 112,526   | 3.6   | 127,407   | 3.3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2,040    | 3.3   | 109,921   | 3.5   | 74,919    | 1.9   |

주 :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정된 서비스업 분류를 사용(부록 표 3 참조)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1.4 지식기반산업**

**서울시 지식기반산업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 75,866개에서 2011년 101,784개로 약 1.3배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산업 사업체수 중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수 비중은 2000년 10.5%에서 2011년 13.5%로 3.0%p 확대되었다.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도 2000년 558,669명에서 2011년 817,55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여, 약 1.5배 확대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 전 산업 종사자수 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11년 18.2%로 2.6%p 확대되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은 감소**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를 이끄는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전 산업 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은 2000년 9.9%(12.7%)에서 2005년 11.7%(14.8%), 2011년 13.1%(17.4%)로 점차 확대되었다. 반면, 전 산업 내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은 2000년 0.6%(2.9%)에서 2005년 0.5%(1.8%), 2011년 0.4%(0.8%)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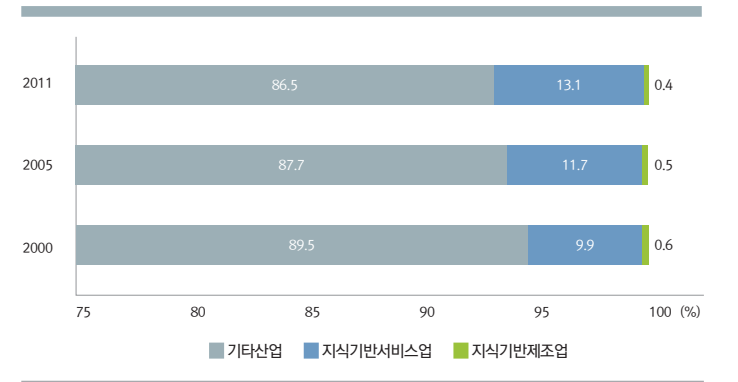
**서울시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16개 시·도 중 1위 수준**

2011년 16개 시·도별 지식기반산업 사업체 비중은 서울(13.5%), 경기(13.1%), 인천(12.5%) 등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지식기반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서울시 지식기반산업은 95% 이상이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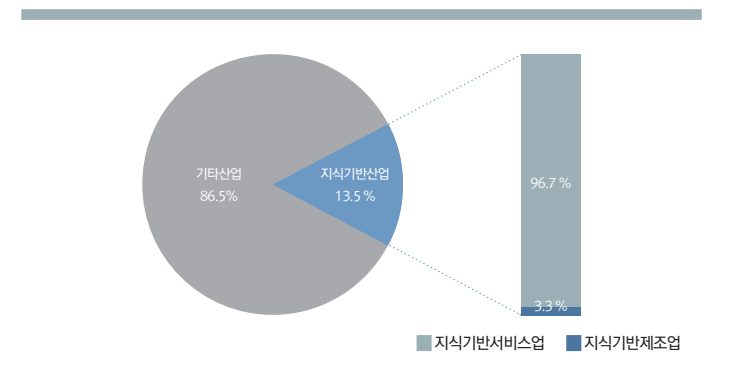
2011년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의 96.7%, 종사자의 95.8%에 달한다. 지식기반제조업은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의 3.3%, 종사자의 4.2%에 불과하다.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60% 이상이 물류와 기업 지원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은 50% 이상이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로 구성된다.

그림 3-6 사업체수 기준 :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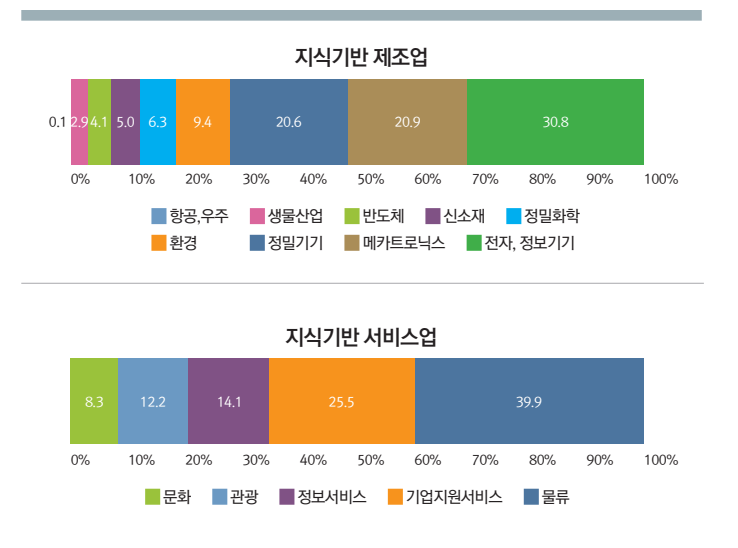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그림 3-7 사업체수 기준 : 서울시 지식기반산업의 구성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그림 3-8 사업체수 기준 :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구성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해당 연도

## 2. 6대 전략산업의 특성

### 6대 전략산업은 관광·MICE, 콘텐츠, 디자인패션, IT융합, 인쇄, 의류봉제

「서울경제비전 2020」에서 제시된 8대 신성장 동력산업과 4대 도시형제조업 중 서울시의 정책 방향, 미래성장가능성, 창조경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6대 전략산업을 선별하였다.

산업별 해당 산업분류 코드는 「서울경제비전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서 정의한 코드를 사용하였다.

#### 산업규모, 성장추이, 규모의 영세성, 특화도, 창업률 등의 지표를 분석

산업규모는 각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성장추이는 각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지수화(2005년=100)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서울시를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산업규모와 추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규모의 영세성은 해당 산업별 전체 사업체수 대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 및 추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화도는 입지상계수(LQ)를 활용하여 권역별 해당 산업의 상대적 분포 및 특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창업률은 해당 산업 사업체수 대비 창업사업체수의 비중을 활용하여 산업별 활력도를 파악하였다.

표 6대 전략산업 분석 지표

| 구분      | 구분                 |
|---------|--------------------|
| 산업규모    |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     |
| 성장추이    | 사업체 및 종사자 지수       |
| 규모의 영세성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 비중 |
| 특화도     | 입지상계수              |
| 창업률     | 당해년 창업사업체수, 비중     |

주:  $LQ_i = \frac{E_i^r / E^r}{E_i^n / E^n}$ , 여기서  $E_i^r(E_i^n)$ 은 지역 r(기준지역 n)의 i 산업 사업체 혹은 종사자수,  $E^r(E^n)$ 은 지역 r(기준지역 n)의 전체 사업체 혹은 종사자수로 통상적으로 1.0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이 기준지역에 비해 해당 산업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

### 2.1.1 관광·MICE산업 – 산업규모

####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는 5,989개로 전 산업의 0.8%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는 5,989개로 전 산업 사업체(752,285개)의 0.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 29.5%가 분포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동남권(25.9%), 서남권(20.1%), 동북권(12.5%), 서북권(12.0%) 등의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의 70.3%에 해당하는 4,213개 사업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사업체 분포 비중이 낮았던 동북권의 규모 영세성이 높고, 사업체 분포 비중이 높았던 도심권의 규모 영세성은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권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명, %)

| 구분     | 사업체   |       | 종사자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5,989 | 100.0 | 64,555 | 100.0 |
| 도심권    | 1,764 | 29.5  | 29,401 | 45.5  |
| 동남권    | 1,552 | 25.9  | 17,636 | 27.3  |
| 동북권    | 748   | 12.5  | 5,183  | 8.0   |
| 서남권    | 1,204 | 20.1  | 7,049  | 10.9  |
| 서북권    | 721   | 12.0  | 5,286  | 8.2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표 3-7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권역별 소규모 사업체 비중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3,182 | 69.1 | 3,793 | 70.7 | 4,213 | 70.3 |
| 도심권    | 731   | 52.7 | 1,150 | 59.8 | 1,123 | 63.7 |
| 동남권    | 789   | 65.8 | 870   | 69.7 | 1,022 | 65.9 |
| 동북권    | 678   | 88.7 | 601   | 88.3 | 604   | 80.7 |
| 서남권    | 698   | 81.7 | 814   | 82.3 | 971   | 80.6 |
| 서북권    | 286   | 71.5 | 358   | 68.5 | 493   | 6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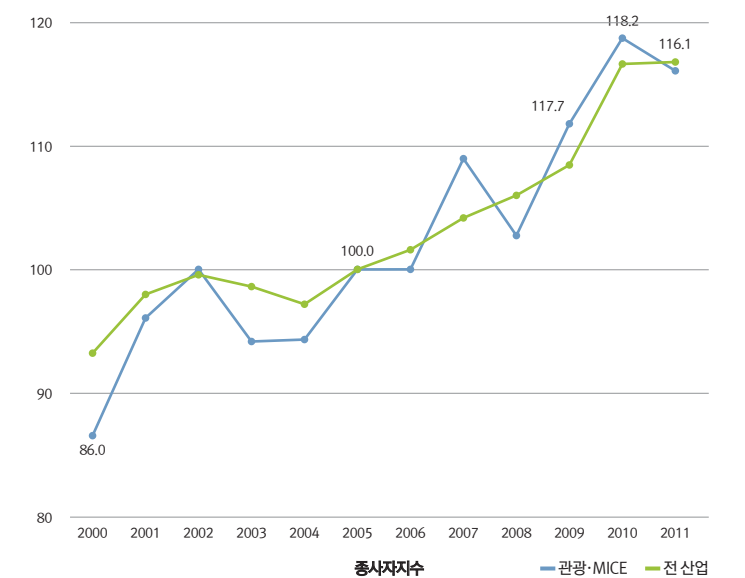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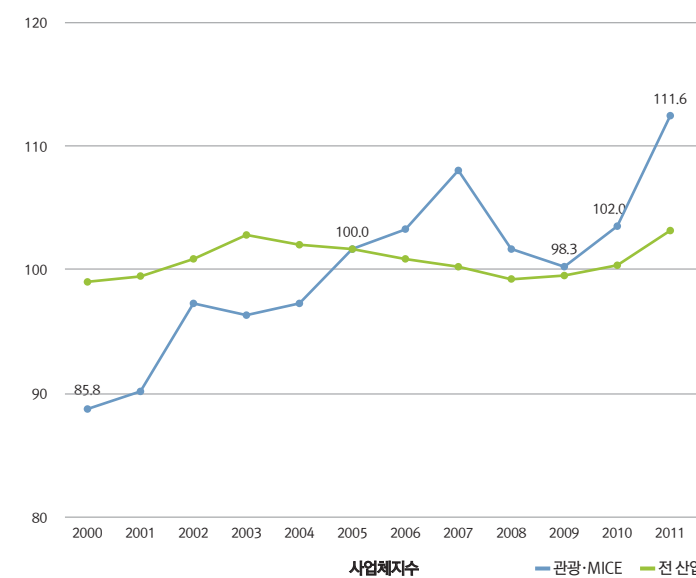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1.2 관광·MICE산업 – 성장률

####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지수는 111.6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지수는 전년 대비 9.6p 증가한 111.6(2005=100)으로 집계되었다. 관광·MICE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 4,603개에서 2011년 5,989개로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사업체수는 증가한 반면, 도심권 사업체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9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사업체지수 및 종사자지수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2011년

### 2.1.3 관광·MICE산업 – 특화도

#### 관광·MICE산업은 사업체수 기준 도심권, 동북권에 특화

2011년 관광·MICE산업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 1.9, 동북권 1.3, 동남권 1.0, 서남권 0.7, 서북권 0.5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체

비중이 낮은 동북권의 특화도가 특징적이다. 2000년 대비 2011년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0.2p)에서는 높아진 반면, 동북권(-0.5p)에서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3-8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권역별 사업체·종사자수의 입지상계수

|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2000 | 2005 | 2011 | 2000 | 2005 | 2011 |
| 도심권 | 1.7  | 2.1  | 1.9  | 2.3  | 2.5  | 2.8  |
| 동남권 | 1.0  | 0.9  | 1.0  | 1.7  | 1.6  | 1.5  |
| 동북권 | 1.8  | 1.3  | 1.3  | 1.1  | 1.0  | 1.0  |
| 서남권 | 0.7  | 0.7  | 0.7  | 0.4  | 0.4  | 0.4  |
| 서북권 | 0.4  | 0.5  | 0.5  | 0.2  | 0.3  | 0.3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1.4 관광·MICE산업 – 창업률

####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의 17.1%는 당해 연도에 창업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의 17.1%인 1,025개의 사업체가 당해 연도에 창업한 신규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동남권(20.4%)의 창업률이 가장 높고, 도심권(11.4%)의 창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관광·MICE산업 창업률은 0.3%p 증가

관광·MICE산업 창업률은 2000년대 초 감소 후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1,218개이었던 창업사업체수는 2005년 904개로 크게 줄었다가, 2011년 1,025개로 증가하였다. 도심권(-4.7%p)의 창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산업 비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활력을 보였다. 2005년 대비 2011년 창업률 등락폭은 동북권 3.6%p, 동남권 3.3%p, 서남권 1.0%p, 서북권 0.5%p, 도심권 -4.7%p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권역별 창업사업체수 및 창업률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 서울시(계) | 1,218  | 26.5 | 904    | 16.8 | 1,025  | 17.1 |
| 도심권    | 326    | 23.5 | 310    | 16.1 | 201    | 11.4 |
| 동남권    | 371    | 30.9 | 214    | 17.1 | 316    | 20.4 |
| 동북권    | 226    | 29.6 | 110    | 16.2 | 148    | 19.8 |
| 서남권    | 205    | 24.0 | 177    | 17.9 | 228    | 18.9 |
| 서북권    | 90     | 22.5 | 93     | 17.8 | 132    | 18.3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2.1 IT융합산업 – 산업규모

####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는 10,159개로 전 산업의 1.4%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는 10,159개로 전 산업 사업체(752,285개)의 1.4% 규모에 해당한다. 권역별로는 사업체의 75% 이상이 서남권(45.6%), 동남권(31.4%)에 분포하고 있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동북권(8.6%), 서북권(7.5%), 도심권(6.8%) 등의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서울시 IT융합산업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낮은 편이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의 39.4%에 해당하는 4,002개 사업체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사업체 분포비중이 높은 서남권과 동남권이 규모 영세성도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의 권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명, %)

| 구분     | 사업체    |       | 종사자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10,159 | 100.0 | 187,873 | 100.0 |
| 도심권    | 695    | 6.8   | 22,235  | 11.8  |
| 동남권    | 3,194  | 31.4  | 63,005  | 33.5  |
| 동북권    | 873    | 8.6   | 11,222  | 6.0   |
| 서남권    | 4,633  | 45.6  | 77,861  | 41.4  |
| 서북권    | 764    | 7.5   | 13,550  | 7.2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표 3-11 서울시 IT융합산업의 권역별 소규모 사업체 비중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2,084 | 30.0 | 2,372 | 33.7 | 4,002 | 39.4 |
| 도심권    | 215   | 38.1 | 209   | 43.9 | 341   | 49.1 |
| 동남권    | 761   | 22.8 | 744   | 29.0 | 1,176 | 36.8 |
| 동북권    | 304   | 43.5 | 310   | 51.3 | 460   | 52.7 |
| 서남권    | 701   | 34.8 | 931   | 31.5 | 1,674 | 36.1 |
| 서북권    | 103   | 30.9 | 178   | 40.1 | 351   | 4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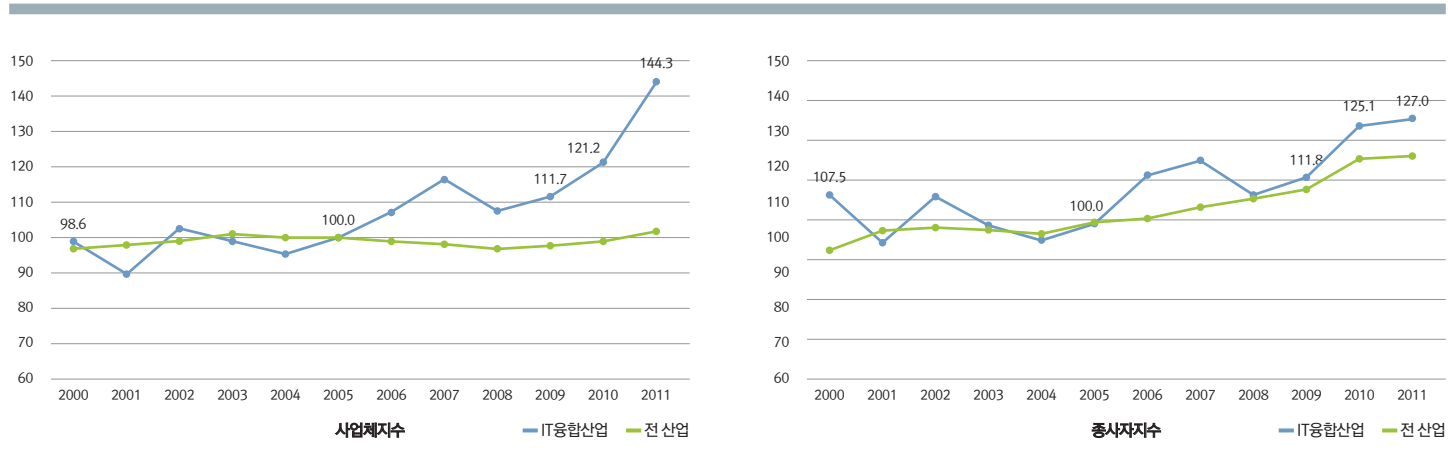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2.2 IT융합산업 – 성장률

####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지수는 144.3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23.1p 증가한 144.3으로 집계되었다. IT융합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 6,945개에서 2011년 10,159개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그림 3-10 서울시 IT융합산업의 사업체지수 및 종사자지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2011년

### 2.2.3 IT융합산업 – 특화도

#### IT융합산업은 사업체수 기준 서남권, 동남권 순으로 특화

2011년 IT융합산업의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서남권 1.7, 동남권 1.2, 동북권 0.9, 도심권 0.4, 서북권 0.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비중이 높은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특화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1년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서남권(0.6p)과 서북권(0.1p)에서는 증가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12 서울시 IT융합산업의 권역별 사업체·종사자수의 입지상계수

|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2000 | 2005 | 2011 | 2000 | 2005 | 2011 |
| 도심권 | 0.5  | 0.4  | 0.4  | 1.1  | 0.6  | 0.7  |
| 동남권 | 1.8  | 1.4  | 1.2  | 2.2  | 2.1  | 1.9  |
| 동북권 | 1.1  | 0.9  | 0.9  | 1.0  | 0.8  | 0.7  |
| 서남권 | 1.1  | 1.6  | 1.7  | 1.1  | 1.5  | 1.6  |
| 서북권 | 0.2  | 0.3  | 0.3  | 0.1  | 0.1  | 0.2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2.4 IT융합산업 – 창업률

####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의 18.2%는 당해연도에 창업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의 18.2%인 1,845개의 사업체가 당해연도에 창업한 신규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서북권(25.3%)과 도심권(24.7%)의 창업률이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IT융합산업 창업률은 5.1%p 증가

서울시 IT융합산업 창업률은 2000년대 초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IT융합산업 창업률은 2000년 36.0%, 2005년 13.1%, 2011년 18.2%로 변화하였다. 2005~2011년 중 IT융합산업의 창업사업체수는 연평균 12.3% 증가하였다. 도심권과 동남권은 사업체 비중도 높으며, 2005년 대비 2011년 창업률 증가폭도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서울시 IT융합산업의 권역별 창업사업체수 및 창업률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창업 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 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 사업체수 | 창업률  |
| 서울시(계) | 2,498   | 36.0 | 920     | 13.1 | 1,845   | 18.2 |
| 도심권    | 204     | 36.2 | 79      | 16.6 | 172     | 24.7 |
| 동남권    | 1,365   | 41.0 | 330     | 12.9 | 639     | 20.0 |
| 동북권    | 230     | 32.9 | 84      | 13.9 | 159     | 18.2 |
| 서남권    | 571     | 28.3 | 337     | 11.4 | 682     | 14.7 |
| 서북권    | 128     | 38.4 | 90      | 20.3 | 193     | 25.3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3.1 콘텐츠산업 – 산업규모

####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사업체는 12,124개로 전 산업의 1.6%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사업체는 12,124개로 전 산업 사업체(752, 285개)의 1.6% 규모에 해당한다. 권역별로 사업체의 약 1/3이 도심권(31.2%)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동남권(24.6%), 서남권(22.0%)

%, 서북권(12.0%), 동북권(10.3%)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63.3%에 해당하는 7,673개 사업체가 소규모사업체로 분석되었다. 2011년 권역별로는 동북권과 도심권의 소규모사업체 비중이 76.7%, 75.4%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표 3-14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12,124 | 100.0 | 123,281 | 100.0 |
| 도심권    | 3,783  | 31.2  | 28,692  | 23.3  |
| 동남권    | 2,981  | 24.6  | 37,469  | 30.4  |
| 동북권    | 1,243  | 10.3  | 5,309   | 4.3   |
| 서남권    | 2,663  | 22.0  | 37,129  | 30.1  |
| 서북권    | 1,454  | 12.0  | 14,682  | 11.9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표 3-15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소규모 사업체 비중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8,569 | 64.1 | 7,715 | 65.1 | 7,673 | 63.3 |
| 도심권    | 3,406 | 69.9 | 3,173 | 75.5 | 2,851 | 75.4 |
| 동남권    | 1,769 | 49.7 | 1,419 | 49.0 | 1,585 | 53.2 |
| 동북권    | 1,281 | 78.8 | 1,068 | 81.0 | 953   | 76.7 |
| 서남권    | 1,394 | 64.7 | 1,336 | 60.0 | 1,448 | 54.4 |
| 서북권    | 719   | 62.3 | 719   | 59.9 | 836   | 5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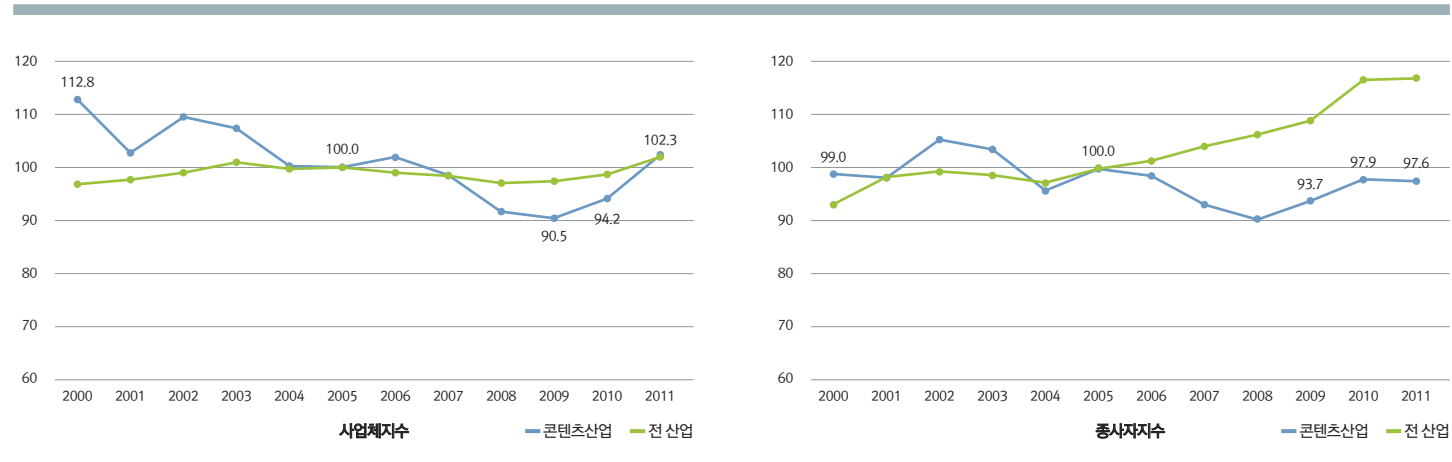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3.2 콘텐츠산업 - 성장률

####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 사업체지수는 102.3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 사업체지수는 전년 대비 8.1p 증가한 102.3으로 집계되었다. 콘텐츠산업 사업체는 2000년 13,364개에서 2011년 12,124개로 연평균 0.9% 감소하였다. 반면, 권역별로는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사업체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1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사업체지수 및 종사자지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2011년

### 2.3.3 콘텐츠산업 - 특화도

#### 콘텐츠산업은 사업체수 기준 도심권에 특화

2011년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 2.0, 동북권 1.1, 동남권 1.0, 서남권 0.8, 서북권 0.5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1년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를 보면 서남권(0.2p), 서북권(0.1p)에서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16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사업체·종사자수의 입지상계수

|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2000 | 2005 | 2011 | 2000 | 2005 | 2011 |
| 도심권 | 2.0  | 2.1  | 2.0  | 1.7  | 1.4  | 1.4  |
| 동남권 | 1.0  | 0.9  | 1.0  | 1.7  | 1.9  | 1.7  |
| 동북권 | 1.3  | 1.2  | 1.1  | 0.9  | 0.6  | 0.5  |
| 서남권 | 0.6  | 0.7  | 0.8  | 0.8  | 1.0  | 1.1  |
| 서북권 | 0.4  | 0.5  | 0.5  | 0.3  | 0.3  | 0.4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3.4 콘텐츠산업 - 창업률

####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 산업체의 15.9%는 당해 연도에 창업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15.9%인 1,923개의 사업체가 당해 연도에 창업한 신규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서북권(18.9%)과 동남권(18.7%)의 창업률이 높았으며, 도심권(13.0%)의 창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콘텐츠산업 창업률은 0.5%p 소폭 증가

서울시 콘텐츠산업 창업률은 2000년대 초 감소 후 현재까지 정체된 경향을 보인다. 서울시 콘텐츠산업 창업률은 2000년 28.3%, 2005년 15.4%, 2011년 15.9%로 변화하였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서울시 콘텐츠산업 창업사업체수는 연평균 0.9% 증가하였다. 2005년 대비 2011년 서북권, 동남권에서는 창업률이 증가하였고, 도심권, 서남권에서는 창업률이 감소하였다.

표 3-17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창업사업체수 및 창업률 (단위 :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 서울시(계) | 3,786  | 28.3 | 1,820  | 15.4 | 1,923  | 15.9 |
| 도심권    | 1,013  | 20.8 | 662    | 15.8 | 491    | 13.0 |
| 동남권    | 1,199  | 33.7 | 415    | 14.3 | 556    | 18.7 |
| 동북권    | 547    | 33.7 | 211    | 16.0 | 192    | 15.4 |
| 서남권    | 736    | 34.1 | 372    | 16.7 | 409    | 15.4 |
| 서북권    | 291    | 25.2 | 160    | 13.3 | 275    | 18.9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4.1 디자인·패션산업 - 산업규모

####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는 2,491개로 전 산업의 0.3%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는 2,491개로 전 산업 사업체(752,285개)의 0.3%에 해당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에 약 40%가 분포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도심권(20.2%), 서북권(17.1%), 서남권(13.8%), 동북권(9.2%)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의 64.0%에 해당하는 1,594개 사업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도심권과 동북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각각 80.6%, 78.3%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의 권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명, %)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2,491 | 100.0 | 14,301 | 100.0 |
| 도심권    | 504   | 20.2  | 1,849  | 12.9  |
| 동남권    | 989   | 39.7  | 7,165  | 50.1  |
| 동북권    | 230   | 9.2   | 1,012  | 7.1   |
| 서남권    | 343   | 13.8  | 2,079  | 14.5  |
| 서북권    | 425   | 17.1  | 2,196  | 15.4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표 3-19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의 권역별 소규모 사업체 비중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731   | 63.2 | 966   | 67.0 | 1,594 | 64.0 |
| 도심권    | 234   | 74.8 | 385   | 82.3 | 406   | 80.6 |
| 동남권    | 255   | 51.0 | 306   | 53.8 | 536   | 54.2 |
| 동북권    | 104   | 85.2 | 98    | 81.7 | 180   | 78.3 |
| 서남권    | 72    | 73.5 | 100   | 64.9 | 206   | 60.1 |
| 서북권    | 66    | 53.7 | 77    | 58.8 | 266   | 6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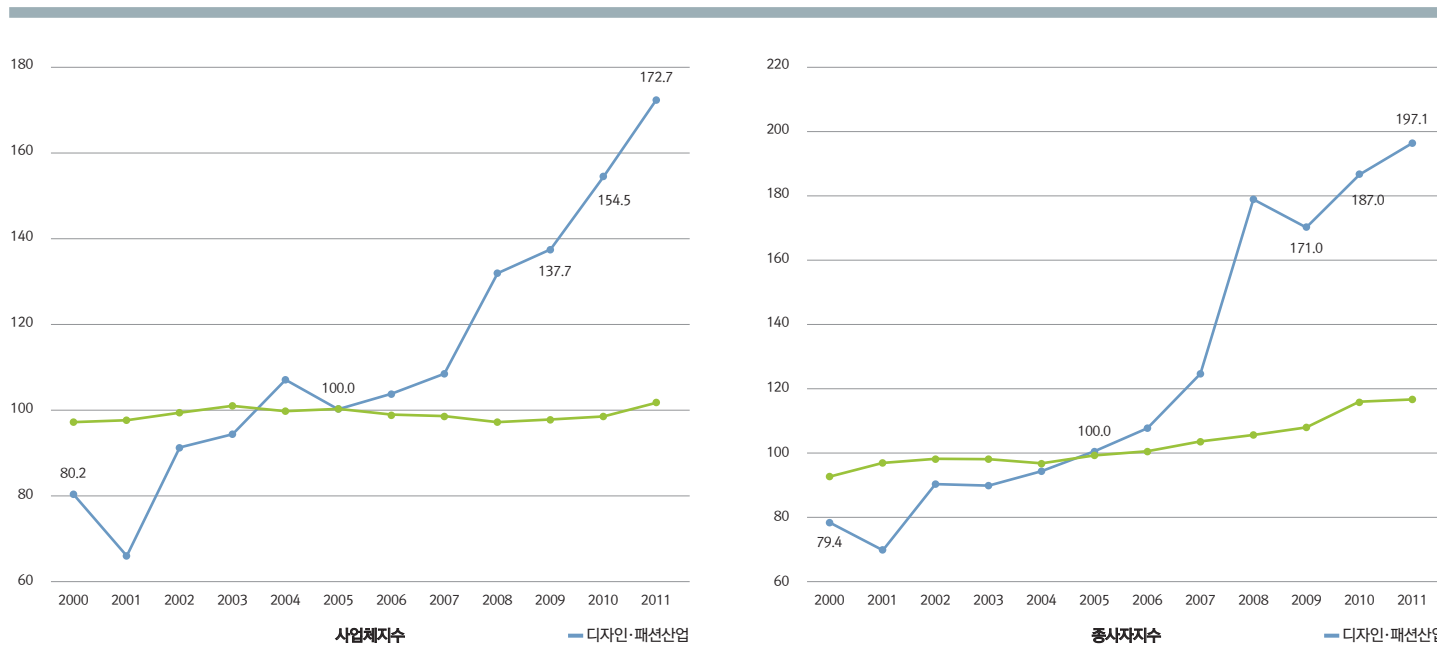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4.2 디자인·패션산업 - 성장률

####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지수는 172.7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지수는 전년 대비 18.2p 증가한 172.7로 집계되었다.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 1,156개에서 2011년 2,491개로 연평균 7.2% 증가하였는데, 모든 권역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가 나타났다.

그림 3-12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의 사업체지수 및 종사자지수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2011년

### 2.4.3 디자인·패션산업 - 특화도

#### 디자인·패션산업은 사업체수 기준 동남권, 도심권에 특화

2011년 디자인·패션산업의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동남권 1.6, 도심권 1.3, 동북권 1.0, 서북권 0.8, 서남권 0.5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1년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특화지역이 아닌 서남권(0.2p)과 서북권(0.3p)에서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20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의 권역별 사업체·종사자수의 입지상계수

|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2000 | 2005 | 2011 | 2000 | 2005 | 2011 |
| 도심권 | 1.5  | 1.9  | 1.3  | 1.1  | 1.3  | 0.8  |
| 동남권 | 1.7  | 1.5  | 1.6  | 2.7  | 2.7  | 2.8  |
| 동북권 | 1.1  | 0.9  | 1.0  | 0.8  | 0.7  | 0.8  |
| 서남권 | 0.3  | 0.4  | 0.5  | 0.3  | 0.4  | 0.6  |
| 서북권 | 0.5  | 0.4  | 0.8  | 0.4  | 0.3  | 0.5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4.4 디자인·패션산업 - 창업률

####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의 18.5%는 당해 연도에 창업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의 18.5%인 460개의 사업체가 당해 연도에 창업한 신규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동북권(28.7%)과 서북권(23.1%)의 창업률이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창업률은 2.6%p 증가

디자인·패션산업 창업률은 2000년대 초 감소 후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창업률은 2000년 33.1%, 2005년 15.9%, 2011년 18.5%로 변화하였다. 2005년에서 2011년 중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창업사업체수는 연평균 12.3%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서남권(-0.3%p)은 창업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21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의 권역별 창업사업체수 및 창업률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 서울시(계) | 383    | 33.1 | 229    | 15.9 | 460    | 18.5 |
| 도심권    | 90     | 28.8 | 52     | 11.1 | 67     | 13.3 |
| 동남권    | 179    | 35.8 | 98     | 17.2 | 181    | 18.3 |
| 동북권    | 43     | 35.2 | 29     | 24.2 | 66     | 28.7 |
| 서남권    | 34     | 34.7 | 22     | 14.3 | 48     | 14.0 |
| 서북권    | 37     | 30.1 | 28     | 21.4 | 98     | 23.1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5.1 인쇄산업 - 산업규모

####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는 7,007개로 전 산업의 0.9%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는 7,007개로 전 산업 사업체(752,285개)의 0.9%에 해당한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 71.3%가 분포하여 타 산업에 비해 지역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외 권역에서는 서남권(11.8%), 동북권(9.0%), 동남권(5.0%), 서북권(2.9%)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의 81.9%에 해당하는 5,736개 사업체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도심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86.0%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65.9%로 가장 낮았다.

표 3-22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의 권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명, %)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7,007 | 100.0 | 26,903 | 100.0 |
| 도심권    | 4,996 | 71.3  | 15,382 | 57.2  |
| 동남권    | 350   | 5.0   | 1,682  | 6.3   |
| 동북권    | 633   | 9.0   | 4,333  | 16.1  |
| 서남권    | 828   | 11.8  | 4,625  | 17.2  |
| 서북권    | 200   | 2.9   | 881    | 3.3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표 3-23 서울시 인쇄산업의 권역별 소규모 사업체 비중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6,040 | 74.8 | 5,537 | 67.4 | 5,736 | 81.9 |
| 도심권    | 4,591 | 76.0 | 3,991 | 65.7 | 4,297 | 86.0 |
| 동남권    | 307   | 78.7 | 332   | 76.0 | 251   | 71.7 |
| 동북권    | 363   | 61.2 | 392   | 63.7 | 417   | 65.9 |
| 서남권    | 616   | 77.0 | 634   | 77.7 | 615   | 74.3 |
| 서북권    | 163   | 65.5 | 188   | 69.1 | 156   | 7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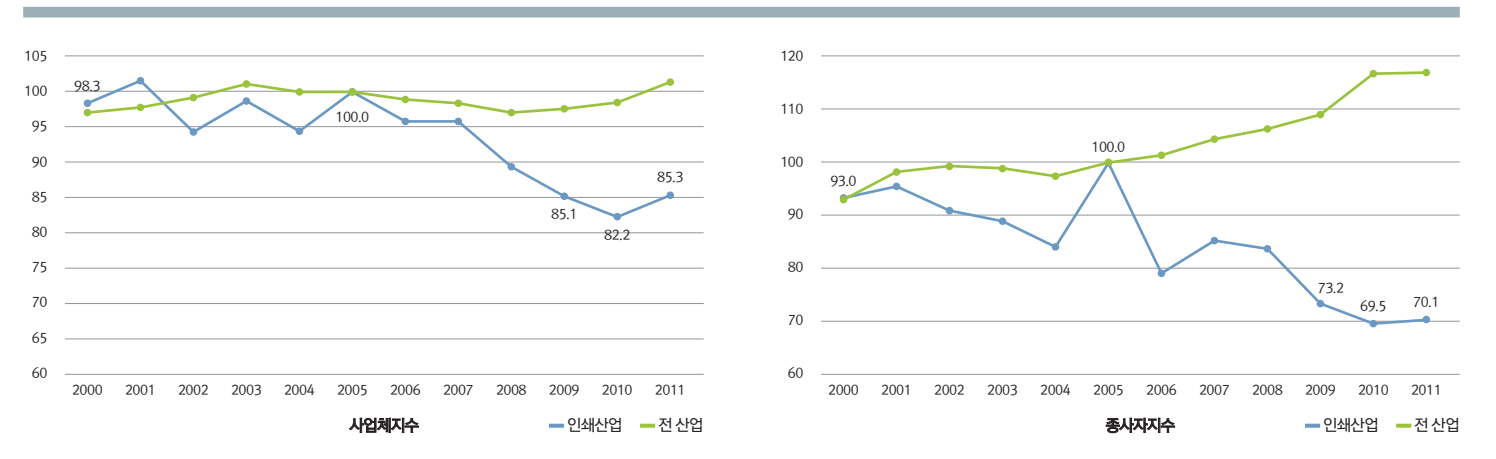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5.2 인쇄산업 - 성장률

####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지수는 85.3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지수는 전년 대비 3.1p 증가한 85.3으로 집계되었다. 인쇄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 8,073개에서 2011년 7,007개로 연평균 1.3% 감소하였다. 인쇄산업 사업체 지수는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 반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3 서울시 인쇄산업의 사업체지수 및 종사자지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2011년

### 2.5.3 인쇄산업 - 특화도

#### 인쇄산업의 사업체수 기준 입지상계수는 도심권에서 매우 높음

2011년 인쇄산업의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 4.6, 동북권 0.9, 서남권 0.4, 동남권 0.2, 서북권 0.1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1년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과 동북권에서 상승하였으며, 타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표 3-24 서울시 인쇄산업의 권역별 사업체·종사자수의 입지상계수

|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2000 | 2005 | 2011 | 2000 | 2005 | 2011 |
| 도심권 | 4.2  | 4.3  | 4.6  | 3.3  | 3.5  | 3.5  |
| 동남권 | 0.2  | 0.2  | 0.2  | 0.3  | 0.3  | 0.3  |
| 동북권 | 0.8  | 0.8  | 0.9  | 1.5  | 1.9  | 1.9  |
| 서남권 | 0.4  | 0.4  | 0.4  | 0.6  | 0.5  | 0.7  |
| 서북권 | 0.1  | 0.2  | 0.1  | 0.2  | 0.1  | 0.1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5.4 인쇄산업 - 창업률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의 7.7%가 당해 연도에 창업**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사업체의 7.7%에 해당하는 540개의 인쇄산업 사업체가 당해 연도에 창업한 신규 사업체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동남권(11.1%)과 동북권(10.6%)의 창업활력이 높은 반면, 특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도심권은 7.1%로 가장 낮은 창업활력을 보였다.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 창업률은 0.8%p 감소**  
 2000년 이후 인쇄산업의 창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인쇄산업의 창업사업체수는 연평균 4.2% 감소하였고, 창업률은 2000년 14.1%, 2005년 8.5%, 2011년 7.7%로 낮아졌다. 권역별 창업률은 2005년 대비 2011년 동북권만 2.0%p 증가하였고, 그 외 모든 권역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3-25 서울시 인쇄산업의 권역별 창업사업체수 및 창업률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 서울시(계) | 1,137  | 14.1 | 699    | 8.5  | 540    | 7.7  |
| 도심권    | 791    | 13.1 | 482    | 7.9  | 356    | 7.1  |
| 동남권    | 95     | 24.4 | 61     | 14.0 | 39     | 11.1 |
| 동북권    | 103    | 17.4 | 53     | 8.6  | 67     | 10.6 |
| 서남권    | 110    | 13.8 | 68     | 8.3  | 60     | 7.2  |
| 서북권    | 38     | 15.3 | 35     | 12.9 | 18     | 9.0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6.1 의류·봉제산업 - 산업규모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는 66,891개로 전 산업의 8.9%**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는 66,891개로 전 산업 사업체(752,285개)의 8.9%에 해당한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 사업체의 42.1%가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동북권(22.4%), 서남권(15.9%), 동남권(13.5%), 서북권(6.1%)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의 87.4%에 해당하는 58,489개 사업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도심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95.9%로 가장 높고, 동북권의 서규모 사업체 비중은 76.0%로 규모의 영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3-26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의 권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명, %)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66,891 | 100.0 | 232,958 | 100.0 |
| 도심권    | 28,172 | 42.1  | 63,657  | 27.3  |
| 동남권    | 9,055  | 13.5  | 50,551  | 21.7  |
| 동북권    | 14,951 | 22.4  | 59,945  | 25.7  |
| 서남권    | 10,633 | 15.9  | 46,216  | 19.8  |
| 서북권    | 4,080  | 6.1   | 12,589  | 5.4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11년

표 3-27 서울시 의류·봉제산업의 권역별 소규모 사업체 비중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서울시(계) | 58,923 | 84.9 | 60,594 | 91.9 | 58,489 | 87.4 |
| 도심권    | 28,913 | 94.6 | 31,078 | 95.4 | 27,021 | 95.9 |
| 동남권    | 7,153  | 80.6 | 6,665  | 79.2 | 7,585  | 83.8 |
| 동북권    | 10,679 | 70.1 | 10,862 | 74.2 | 11,360 | 76.0 |
| 서남권    | 8,522  | 80.9 | 8,342  | 82.2 | 8,857  | 83.3 |
| 서북권    | 3,656  | 86.1 | 3,647  | 86.5 | 3,666  | 89.9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6.2 의류·봉제산업 - 성장률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지수는 95.6**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지수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한 95.6으로 집계되었다. 의류·봉제산업의 사업체수는 2000년 69,438개에서 2011년 66,891개로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의류·봉제산업의 사업체지수는 2005년 이후 4년간 감소하다 2009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4 서울시 의류·봉제산업의 사업체지수 및 종사자지수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2011년

### 2.6.3 의류·봉제산업 – 특화도

#### 의류·봉제산업의 특화도는 도심권과 동북권에 특화

2011년 의류·봉제산업의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 2.7, 동북권 2.3, 서남권 0.6, 동남권 0.5, 서북권 0.3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1년 권역별 사업체 특화도는 도심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8 서울시 의류·봉제산업의 권역별 사업체·종사자수의 입지상계수

|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2000 | 2005 | 2011 | 2000 | 2005 | 2011 |
| 도심권 | 2.5  | 2.7  | 2.7  | 1.4  | 1.7  | 1.7  |
| 동남권 | 0.5  | 0.5  | 0.5  | 0.9  | 1.1  | 1.2  |
| 동북권 | 2.4  | 2.2  | 2.3  | 3.7  | 3.2  | 3.1  |
| 서남권 | 0.6  | 0.5  | 0.6  | 0.8  | 0.7  | 0.8  |
| 서북권 | 0.3  | 0.3  | 0.3  | 0.2  | 0.2  | 0.2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2.6.4 의류·봉제산업 – 창업률

####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의 16.7%가 당해 연도에 창업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사업체의 16.7%인 11,183개의 사업체가 당해 연도에 창업한 신규 사업체로 나타났다. 2011년 권역별로는 서북권(22.5%), 동남권(21.4%), 서남권(20.6%)의 창업률이 각각 2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창업률은 1.2%p 증가

2005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창업사업체수는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서울시 의류·봉제산업 창업률은 2000년 23.1%, 2005년 15.5%, 2011년 16.7%로 변동하였다. 2005년 대비 2011년 창업률은 도심권만 -1.0%p로 감소하였고, 그 외 모든 권역에서 창업률이 증가하였다.

표 3-29 서울시 의류·봉제산업의 권역별 창업사업체수 및 창업률 (단위: 개,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1년  |      |
|--------|--------|------|--------|------|--------|------|
|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창업사업체수 | 창업률  |
| 서울시(계) | 16,054 | 23.1 | 10,843 | 15.5 | 11,183 | 16.7 |
| 도심권    | 6,450  | 21.1 | 4,348  | 13.3 | 3,454  | 12.3 |
| 동남권    | 2,233  | 25.2 | 1,344  | 16.0 | 1,940  | 21.4 |
| 동북권    | 3,861  | 25.3 | 2,588  | 17.7 | 2,683  | 17.9 |
| 서남권    | 2,531  | 24.0 | 1,729  | 17.0 | 2,187  | 20.6 |
| 서북권    | 979    | 23.0 | 834    | 19.8 | 919    | 22.5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 2000년, 2005년, 2011년

## 3. 요약

### 서비스화 확대와 제조기능 약화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난 11년간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고 제조기능이 약화 되면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서비스화 수준은 2011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91.3%, 사업체수 기준으로 89.9%, 종사자수 기준으로 85.6%로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2000년 대비 2011년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수 기준 각각 2.7%p, 9.8%p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서울의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제조업 사업체수의 12.1배,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제조업 종사자수의 14.0배 수준에 달했다. 2011년 사업체수 기준 서울의 상위 5대 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32.0%), 숙박·음식점업(17.7%), 운수업(13.6%), 기타서비스업(10.3%), 사업서비스업(6.0%)으로 나타났다.

###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 75,866개에서 2011년 101,784개로 약 1.3배 확대되었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본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2011년 13.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도 2000년 558,669명에서 2011년 817,550명으로 약 1.5배 확대되었다. 그 결과 서울의 전 산업 종사자수 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11년 18.2%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를 이끄는 주요 산업은 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의 96.7%, 종사자의 95.8%에 달한다.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60% 이상이 물류와 기업 지원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모의 영세성 문제 완화

서울시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2000년 82.8%에서 2011년 81.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 11년간 1.3%p 축소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업체의 영세성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인 사업체 비중 확대 등으로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 디자인·패션산업의 비약적 성장

과거 10년간 6대 전략 산업은 디자인·패션, IT·스마트, 관광·MICE산업 등이 사업체와 종사자수 기준으로 모두 성장한 반면, 인쇄, 의류·봉제산업 등 도심형 제조업은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디자인·패션산업은 사업체 지수와 종사자 지수가 각각 100p가량 상승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6대 전략 산업의 창업률은 2000년 대비 모두 하락하고 있어 창업 활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